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5475호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DJ 풀파티에
요트체험까지
호캉스 레벨업
L1

세븐브로이
위스키 제조로
재기 도모
L2

폐기물 줄이고, 친환경기술 키우고 서울시, 녹색산업 육성에 29억 투입

기후 대응 혁신기술, 녹색기업 발굴
분리배출 강화 등 폐기물 집중감량
커피박, 폐봉제 원단 수거해 재활용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저감과 녹색산업 양성 등을 통해 탄소중립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에 29억 200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혁신적인 녹색 창업기업을 발굴해 성장 단계별 역량 강화,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혁신 창업기업 발굴 ▲교육·컨설팅 ▲시제품 제작·기업평가 지원 ▲온라인 판매전 ▲투자상담회에 나선다.

혁신 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녹색기업 창업펀드'도 조성해 운영한다. 조성 규모는 총 200억원이며, 시가 20억원을 출자한다. 시는 펀드 운용사 공고 및 선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 10월부터 조합 결성·운용에 들어간다.

기후변화 대응 혁신기술 발굴을 위한 실증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실증 장소와 업체당 최대 2억원을 지급하는 '예산지원형'과 실증 공간만을 제공하는 '비예산지원형'으로 나눠 수혜 대상을 선정, 올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실증을 실시한다.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동측광장에서 열린 강남 그린 페스티벌에서 어린이들이 분리수거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종량제 생활폐기물 집중 감량도 추진한다. 사업장 폐기물 자체 처리 확대,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강화, 수거체계 개선 등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축으로 오는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연면적 1만㎡ 이상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해 178곳(38.2t/일)을 자체 처리로 전환하고, 698개소를 점검해 대상지를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관악구 등 4개구에서는 하루 3t의 폐비닐을 열분해하는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다.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 상업시설 대상 감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마포, 양천구를 포함 서울시내 15개 구 3295개 매장에서는 커피박(일 11.5t)을 수거해 재활용하고 있으며, 10개 자치구에서 하루 32.4t의 폐봉제 원단을 재활용하고, 중랑물센터 내 전용 집하장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학교현장 변화 위해 교권 3법 제·개정해야"

조희연 교육감, 순직교사 1주기 추모
보호 5법 개정에도 현장 체감도 낮아
정서적 아동학대, 정확한 규정 필요

오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을 개정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현장 체감도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조 교육감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순직교사 1주기를 추모하며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줄이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교권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제정을 제안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사가 정서행동장애나 위기 학생 등을 긴급할 경우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분리 조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공간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정서행동장애·위기 학생을 돕고 싶어도 보호자 동의가 없어 전문적 치료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되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위기학생의 동의를 거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교육감이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아동복지법'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교안전법' 역시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교권침해 여전… 10건 중 1건 '상해·폭행'

지난해 피해 5050건… 4년새 2배↑
피해교사 병가·휴직 3년새 9배 급증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만4213건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5050건으로, 2662건이던 2020년보다 4년 새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해폭행 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꼴이다.

특히 교권침해 형태는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 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415건 ▲2021년 1033건 ▲2022년 1300건 ▲2023년 2965건으로 3년새 7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4년간 병가·휴직자는 1760건으로 3년 새 9배 급증했다.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가 심각해지면서 가해학생의 전학·퇴학 처분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은 총 9568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회복하도록 법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당론 채택을 검토 중이다. 특별법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법제화 및 지원방안 마련 ▲수업방해 위기학생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교육적 지원방안 마련 ▲악성 학교민원 대응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이현진 기자

파주시, 공공예금 이자수익 73억 달성

'이자수익 올리고 실무협의체' 효과
체계적 관리로 전년 대비 17% 증가

파주시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2024년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익으로 73억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실적인 63억원에 비해 17% 증가한 수치다.

이 성과는 회계과, 징수과, 예산법무과와 엔에이치(NH)농협은행이 협력하여 '이자수익 올리고(GO)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이다. 이 협의체는 세입·세출에 대한 정확한 예측, 금리 변동에 대한 분석, 유휴 자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이자수익을 크게 증대시켰다.

시는 3개월 이하의 단기 저금리 예금을 줄이고, 6개월 이상의 중장기 고금리 예금의 비중을 확대하여 2024년 연간 공공예금 이자수익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14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앞으로도 1억원 이상 고액 지출 사전협의제 등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효과적인 자금 관리를 통해 유휴 자금은 최소화하고 이자수익은 최대화하여 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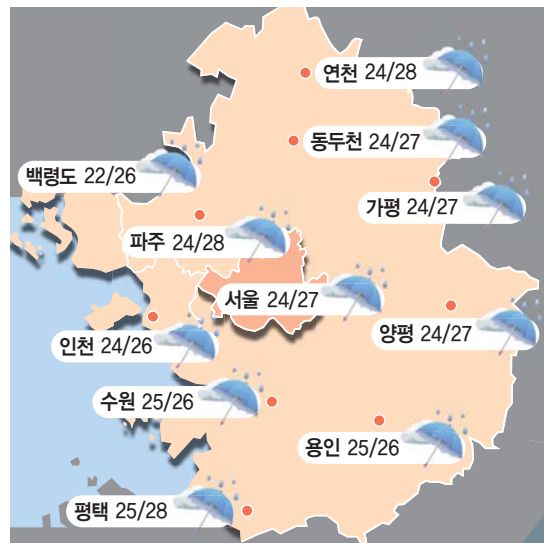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5:25 | 해짐 / 19:51

7월 18일 (木)
음력 : 6월 13일

수도권 날씨
24 ~ 27℃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음바페, 레알 마드리드 입단…"꿈 이뤘다" /사진 뉴시스
▲황희찬에 '재키찬'…인종차별 구단 해명 논란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관람객 9.5만명…"역대 최다"
▲재런 두란, 보스턴 선수로 16년만에 MVP

▲'서울라면' 먹고 '서울달' 타자…티켓 증정 이벤트
▲'고창 문수사 대웅전' 보물 됐다
/사진 뉴시스